

시선

사설

모로 가도 총장만 뽑으면 되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지난 9월 11일 총장 후보 추천안이 2안으로 의결된 후 대학은 총장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 1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대학은 오는 11월내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총장’보다 ‘선출’에 열중하고 있는 듯하다. 총장을 어떻게 선출하겠단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 총장을 뽑기 위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9일 대학은 주요 일간지에 총장 초빙 안내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총장 초빙 공고는 지난 2일야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알다시피 총장 후보 지원 마감은 오는 8일이다. 총장 선출이라는 ‘무거움’에 비해 촉박한 일정의 ‘가벼움’은 아무리 봐도 조화가 되지 않는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총장 초빙 홍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하는 것만 이뤄졌다. 구성원에게 학내 언론기관과 이메일 등 비교적 접근성 높은 수단을 통해 알릴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한 구성원은 총장 후보 자리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고에 포함된 총장 선출 타임라인도 구성원 합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으로 보기 어렵다. 총장 후보 추천안이 2안으로 의결되면서 여전히 직원과 학생 투표비율 및 세부 선거세칙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총장을 뽑는 일인 만큼 논의가 착실

히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은 대행 체제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한 기간에 집중해 촉박한 총장 선출 타임라인을 게시했다. 1년이 넘어가는 대행체제를 피하고 싶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확실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야기 되어야 하는 점이다.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총장을 선출하는 것보단 어쩌면 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상황이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일 수 있다.

결국 대학이 총장 후보 공모를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건 또 다시 뒷말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출 일정을 급박하게 짜놓은 것도 한 마찬가지다. 그간 구성원이 총장 후보 추천안에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던 이유를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총장 선출은 수만 명이 포함된 대학 사회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한 합의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건 ‘선출’보다 ‘총장’에 방점이 찍힌 총장 선출이다. 대학은 총장을 어떠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수 있을지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일처리는 적어도 대학 총장 선출에선 통하지 않는단 걸 기억해야 한다. 만에 하나 서울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펼쳐질 일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구성원의 불만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우리학교를 이끌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단합된 ‘경희’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만평 - 여학생 열람실 폐지



‘무지의 베일’을 쓰고 평등, 공정, 정의를 새겨라

세시봉

이서림 <국제뉴스팀장>



여러 사람과 함께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이 게임 속 캐릭터의 재능, 부, 성격, 가치관, 환경 등은 참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각각의 참가자는 ‘무지의 베일’에 눈이 가려진 채로 자신의 캐릭터를 골라야 한다. 이때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캐릭터가 게임에 유리한 조건이기를 바랄 것이다. 결국 불리한 캐릭터를 선택할 것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캐릭터 간 불평등을 개선할 제도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는 20세기 저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가정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롤스처럼 ‘무지의 베일’을 쓰고 본인이 가진 조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 재능과 같은 운은 불평등한 사실 그 자체다. 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정의’라는 게 롤스의 주장이다.

우리는 불평등한 세상에 산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30세대 사이에 흔히 쓰이는 ‘금수저’, ‘흙수저’ 등의 자조적 단어가 이를 증명한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은 롤스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념이나 정치적 가치관을 떠나 불공정한 과정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누구보다 정의를 외쳐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적절하지 못한 의혹을 받았다. 입시, 인턴, 각종 수상경력 등 자녀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됐다.

“권력과 이득에 눈멀지 않고 평등, 공정, 정의를 새겨야

뿐만 아니라 지난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채용비리가 공공연하게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비공개로 면접을 봤으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규직 전환

자는 10.9%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성의 면접 성적을 조작해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다.

불평등한 기회에 압도되어 공정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세상이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가진 것을 이용해 도리어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권력자들은 베일을 쓰지 않고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불평등은 어느새 넘을 수 없는 벽이 됐다. 권력자들이 노력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오른 것에는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권력이 특권이 되어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하는 이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불공정한 상황이 되풀이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인 듯하다.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안타깝다. 만약 롤스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권력자들에게 “무지의 베일을 써라”라고 말할 것 같다. 기회는 평등한지, 절차는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이득에 눈멀지 않아야 한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회에 평등, 공정, 정의를 새길 때다.

불치이병(不治已病) 치미병(治未病)

취재수첩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한의학의 경전 중 하나인 ‘황제내경’에는 “성인불치이병(聖人不治已病) 치미병(治未病)”이라는 말이 있다. 성인은 이미 병이 진행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치료를 한다는 뜻이다. ‘미병’의 상태는 병이 시작될 여러 단서가 보이지만, 병이라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즉, 가장 현명한 치료는 이미 아픔을 느낀 이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이전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생 건강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면서 관할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다. 건강검사를 주관하는 입학처의 이야기 중 다행스러운 소식은 수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아픈 학생이 아직까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자 이런 결과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검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후에 이렇다 할 제재나 조치가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건강검사를 받은

학생들 역시 다소 정상 수치에서 벗어난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허점은 있어도 사소해 보인다. 아직까진 아프지 않다. 학교도, 그 안의 학생도 딱 현재까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미 병이 진행된 이후에는 치료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치료와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학생의 입장에서 ‘미병’을 살피는 세심함을 기대한다

특정 단과대학은 수검률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고, 전체 수검률도 약 70%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살필 기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지에는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건강증진계획도 찾기 어려웠다. 인터뷰 중에 만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건강센터나 의료공제회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건강검사라는 하

나의 의료 서비스를 살피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 나씩 드러났다.

물론 건강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각 구성원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낸 비용으로 이뤄지는 의료 서비스는 응당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시간을 생각하면 학교 측에도 건강한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병들고 있을지 모를 제도 하나, 구성원 하나에게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가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모두가 받는, 특히 의무로 참여가 정해져 있는 행사나 서비스일수록 사실 우리의 관심을 벗어날 때가 많다. 그러나 매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들에 조그만 관심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자. 작은 개선만 이뤄져도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막으면 다른 학생에게 앓을 아픔도 사라진다. 덮여두면 큰 병이 되고, 부지런히 살피면 건강을 얻듯이 학생의 입장에서 ‘미병’을 살피는 학교의 세심한 진찰을 기대한다.